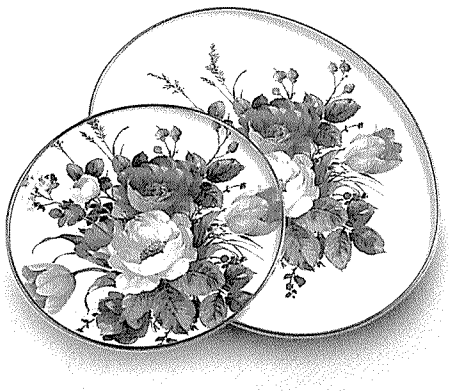
이젠 쟁반도 유행시대
최신 인기쟁반 총집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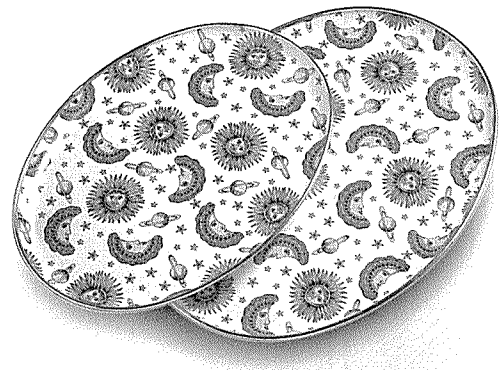
쟁반은 단순히 제품을 담아내는 기능적인 용도 외에도 형태, 무늬, 색상에 따라 다양한 느낌을 연출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. 특히 최근에는 열에 강하고 잘 깨지지 않는 합성수지재를 사용한 실용적인 제품들과 가볍고 화려한 무늬의 멜라닌 제품들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. 이번호 소품모음에서는 최신 유행 쟁반을 한곳에 모았다.

〈진행 / 박현희〉
〈제품협찬/ 정훈사 (02-778-6293)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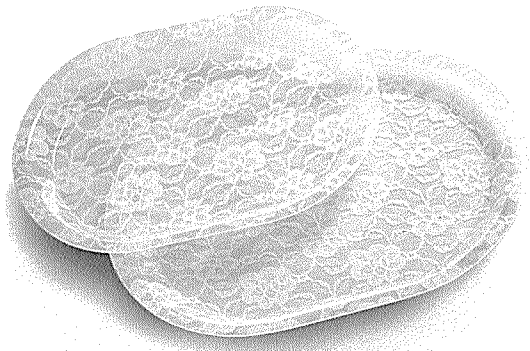
⇑ 멜라닌 소재의 화려한 무늬가 돋보이는 쟁반들. 크기와 모양이 다양해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각각 8,000원, 5,000원, 3,000원이다.



한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무늬와 금색 테두리의 화려함이 돋보인다. 장미무늬의 이 쟁반은 영국산으로 최근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다. 원형, 사각, 타원형이 있으며 대 · 중 · 소 세트에 26,000원에 판매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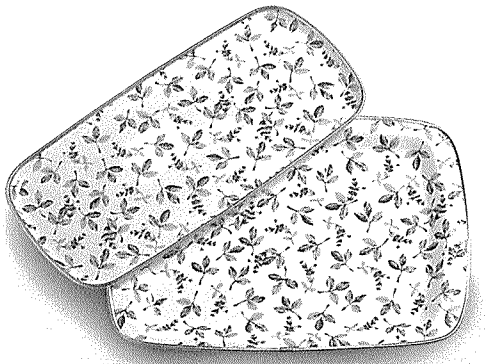


이번 여름 유리컵에 등장해 인기를 끌었던 무늬가 쟁반으로도 소개되었다. 3개 한세트에 26,000원, 작은 사이즈와 중간 사이즈를 낱개로 구입할 때는 7,000원, 9,000원에 판매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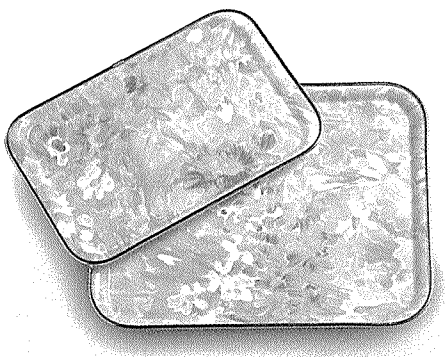
여름에 어울리는 레이스 무늬의 쟁반이다. 아크릴 소재로 만든 이 쟁반은 대만산으로 시원함과 함께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 준다. 세트로 구입하면 25,000원, 대 · 중 · 소 낱개 구입시에는 9,000원, 10,000원, 13,000원이다.

정사각형의 다양한 무늬가 특징인 멜라닌 쟁반. 이태리산으로 화이버텍보다는 잘 깨지는 단점이 있지만 중량이 가볍고 화려가 색채가 특징. 판매가격은 8,000원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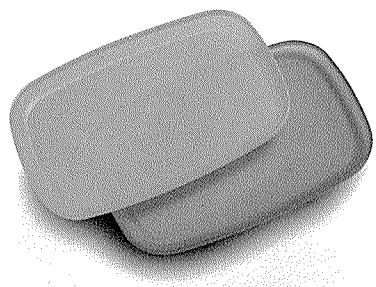
은은한 꽃 무늬가 인상적인 이 쟁반은 타원형, 사각형, 직사각형 등 다양한 모양이 있으며 쟁반 이외에도 휴지통 등 여러 가지 소품이 나와 있어 매장 분위기를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. 큰 사각형은 14,000원, 작은 것은 10,000원에 판매된다.

아름다운 꽃무늬와 금색 테두리가 조화를 이뤄 고급스런 분위기를 자아낸다.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선보이고 있으며 반응 또한 좋은 제품이다. 판매가격은 크기에 따라 6,000원, 8,000원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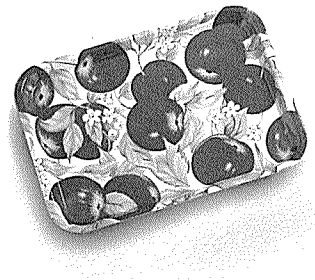


색상에서나 무늬에서나 화사함이 느껴지는 꽃무늬 쟁반. 어떤 음식을 담아도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. 대 · 중 · 소 세트에 24,000원, 크기에 따라 낱개로 구입시에는 8,000원, 6,000원이다.

-보너스 벼룩시장-



플라스틱 재질의 심플한 느낌이 눈에 띄는 개당 2,000원의 실속형 쟁반. 파랑, 오렌지 두가지 색상이 있다.



⇨ 멜라닌 소재의 화려한 쟁반. 유행이 지났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손색이 없는 제품. 가격은 5,000원이다.